아르센 뤼팽의 외투

Le Pardessus d’Arsène Lupin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4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 Pardessus d’Arsène Lupin » (1924)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Pardessus d’Arsène Lupin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등 뒤에 꼬고, 재킷 칼라에 목이 파묻힌 채, 생각에 잠긴 날카로운 얼굴을 일그러뜨린 장 루크발이 자신의 넓은 장관실을 빠르게 걸으며 두루 살피고 있었다. 문턱에서는 사무관장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걱정스러운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제할 수 없는 몸짓을 해냈는데, 이는 인생의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극도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일정한 나이의 신사와 부인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붉은색 안락의자에 앉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젊은 신사가 혼자 올 것입니다. 그분은 큰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두 그룹이 서로 대화하거나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바로 알리세요."

"네, 각하."

장 루크발의 정치력은 타고난 에너지와 성실한 지혜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두 아들의 실종과 아내의 슬픔으로 인한 죽음을 갚기 위해 싸웠다. 그 경험은 그에게 때로 지나칠 정도로 강한 규율, 권위, 그리고 의무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책임을 혼자서 짊어졌다. 그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권력도 최대한 행사했다. 그는 자제된 열정으로 조국을 사랑했다. 그 열정은 종종 임의적인 행동조차 정당하고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경계도 받았다. 그의 과잉된 자질이 불러온 불신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내각을 쓸데없는 복잡함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늘 우려했다.

그가 시계를 보았다. 다섯 시 이십 분 전.

그는 자기가 극도로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무서운 사건 관련 자료를 잠깐이라도 훑어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총리실과 직접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꽤 길었다.

마침내 연결이 되고 나서 그는 대답했다.

"네, 나야.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그는 경청했다. 얼굴에는 짜증이 어렸고, 그는 약간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주재님, 방금 보내주신 형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라면 우리가 찾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얻었을 텐데요…… 어쨌든, 주재님이 그렇게 고집하시니, 그리고 그 '작은 회색 곰'이 주재님 말씀대로 '수사 전문가'라니, 제가 준비해 둔 대면 심문에도 그 형사를 동석시키겠습니다…… 알로?…… 네, 맞습니다, 주재님. 이 일은 정말 극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제 막 돌기 시작한 몇 가지 루머 때문에 더더욱 그

렇습니다…… 만약 제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진실이 우리의 우려대로 드러난다면, 이는 끔찍한 스캔들이자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알로…… 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재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몇 마디 말이 오간 뒤, 루크발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다.

“그래… 그래야 해… 저런 스캔들이야…”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킬 방도를 궁리하고 있던 그였다.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 곁에 서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이는 눈에 띄려 하지 않았다.

루크발이 고개를 돌리자, 그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네 발짝 앞에서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외모는 형편없었다. 흔히 말하는 ‘가엾은 신세’였다. 그이는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다. 작은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의 겸손한 태도였다.

“거기서 뭐 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으로 왔습니다, 각하. 경호원이 사람들을 좌우로 몰아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하룰 Petitgris입니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그 사람이지요, 각하. 총리 각하께서 방금 소개해 주셨죠."

"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있었구나?"

루크발이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각하?"

그는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슬픈 얼굴 전체가, 머리카락과 수염, 날씬한 코와 볼, 그리고 처진 입꼬리까지 모두 우울감에 젖어 있었다. 그의 팔은 피곤한 듯 축 처진 채, 어깨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듯한 녹슨빛 코트 자락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비통한 어조로 말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꾸민 듯한 억양도 섞여 있었다. 때로는 특정 음절을 왜곡해 발음했는데, 이는 평범한 서민들의 습관처럼 보였다. 그는 "모씨 에 미니쓰… 보따 위시예"라고 발음했다.

"장관님, 더 이상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요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어떤 요원도 아닙니다. 본래 지방청에서 해고되었거든요. 해고 사유는 '무미건조한 성격, 음주 중독, 그리고 게으름'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한 해고 조항입니다."

루브발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께서 당신을 저에게 소개하며, 유능하고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각하.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 실패한 사례나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 사소한 습관 때문에 화내지도 않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게으른 자니까요. 목마를 때껏 마시고, 입찰용 마놀라 게임을 좋아하죠. 성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일 뿐이죠. 상사들에게 자만스럽고 무례하다고 탓받는다구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들이 어물어물거리고 제가 상황을 명확히 볼 때, 제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조금 웃을 권리가 없나요? 보세요, 각하. 한두 번이 아니라 돈까지 거절하며 웃을 권리를 지킨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얼굴을 찌푸리곤 하죠…"

그의 처진 얼굴, 슬픈 수염 아래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조용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큼직한 송곳니를 드러냈다. 맹수 같은 송곳니였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은 비웃는 듯한 기쁨으로 물들었다. 그런 이빨을 가진 남자는 반드시 깊이 물고 늘어질 사람이었다.

루발은 물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는 말이 좋지가 않았다. 그는 이 남자를 빨리 쫓아내고 싶었지만, 총리가 강요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앉으시오." 그가 거친 어조로 말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을 심문하고 대조해 볼 거요. 만약 당신이 할 말이 있다면, 직접 나에게 말하시오."

"직접 뵙겠습니다, 각하. 그리고 평소처럼 소곤거리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가 헛소리를 할 때면, 제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루크발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거리를 두지 않는 태도를 싫어했다. 그다음으로, 그는 많은 실용가들처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했다. '헛소리'라는 그 표현이 그에게 적용되자, 그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자 고의적인 위협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미 그는 종을 울렸고, 서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세 사람을 들이라고 명했다.

에르큘 페티그르는 녹색빛이 도는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접고 앉았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상복을 입었고, 품격 있는 풍모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아직 젊었으며 매우 아름다웠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와 엄격한 인상의 창백한 얼굴이 특징이었다. 남편은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우아했으며, 수염은 거의 하얗게 서렸다.

장 루크발이 물었다.

"와이베르네 백부님, 맞습니까?"

"네, 각하. 저희 부부는 각하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환장이 우리에게 불쾌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가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루크발은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르베르네 부인께서 제가 드린 작은 불편함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문이 다시 열렸다. 스무 살에서 서른 살 사이의 사내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차림은 검소했고, 외모도 단정하지 않았다. 어깨는 넓고 젊은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쇠락과 피로의 자국이 역력했다. 친근하고 상냥한 인상이었지만, 그 아래 숨은 허약함이 낯선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바로 막심 레리오인가?"

"네, 각하."

"부인과 부인을 아느냐?"

"아니요, 각하." 새참석자가 고개를 저으며 백작과 백작부를 살폈다.

백작이 루크발의 질문에 답했다. "우리도 이 분은 처음 뵙는다."

루크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화 시작부터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술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 작은 오해는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은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열린 파일을 손에 들고 맥시므 레리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메인에 루아르주 돌랑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실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당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 노력에 대해 당신은 충분히 보답했습니다. 학업은 성실했고, 행실은 완벽했으며, 아버지에게도 세심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모孝子이자 흠결 없는 학생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죠."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신은 보병 소위로 징집되었죠. 4년 후, 당신은 중사까지 승진했고 전쟁십자장을 받았으며, 다섯 번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군에 남아 복무하기로 했죠. 1920년 말, 당신은 베르됭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상관은 당신이 훌륭한 장교가 될 재능이 있다고 평가했고, 당신은 장교 시험까지 준비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중순,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느 날 밤, 하급 다인 싱에서 샴페인 병을 열다 보니 머리가 혼미해졌죠. 이유 없이 다툼이 벌어졌고, 당신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 당신을 체포했

고, 파출소로 데려갔으며,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지갑에는 10만 프랑 어음권이 들어 있었죠. 그 돈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막심 레리오가 항의했다.

"죄송합니다, 각하. 저는 이 돈이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맡긴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어쨌든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개월 후, 모든 병역을 마친 당신에게 또 다른 스캔들이 닥쳤습니다. 이번엔 지갑 속에 사백만 프랑 상당의 국방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침묵과 수수께끼만 남겼죠."

레리오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런 일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다. 과거 법원과 벌인 또 다른 두 번의 유사한 마찰이 거론되어도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명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오? 그 후로 이어져 온 방탕한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요? 정당한 직업도 없고, 인정할 만한 수입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마치 샘물처럼 끝없이 흘러나오죠."

막심 레리오가 나직이 말했다.

"친구들이 있거든요."

"누구 친구란 말인가? 네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른다. 네가 유흥가를 누비는 무리는 계속 바뀌고, 거기에 모인 자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녀석들뿐이다. 그들은 네 돈으로 먹고 산다.

당시 너를 수사한 특수 요원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너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내려갔다.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우연이거나, 너 자신의 실수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어느 날, 승리의 아치 근처, 미지의 용사의 묘 앞이었다.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러 오는 한 부인에게 한 남자가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 당신의 남편이 보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알리지 않으면…'

말투는 협박에 가까웠고, 남자의 태도는 앙칼지고 사나웠다. 부인은 당황하며 차를 타고 급히 자리를 떴다.

지금 그 두 사람이 바로 당신, 막심 레리오와 부인 보르베르네 백작 부인이라는 점,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체했다는 점을 굳이 설명해야 할까?"

루크발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제발입니다, 백작님." 그가 개입하려던 순간을 재촉하듯 말했다.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추론이

나 가설의 결과가 아닙니다. 소문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알고, 확인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다면, 부아베르네 여사는 매일 성스러운 돌멩이 앞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잃었고, 매주 그곳을 들려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은 제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을 뿐입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일종의 협박처럼 보였으니까요."

백작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아내도 움직이지 않았다. 구석진 자리에서 형사 에르큘 페티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문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수긍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모습을 옆눈으로 지켜보던 장 루크발은 안심이 되었다. 치아가 입가에서 삐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形勢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다. 그는 추궁의 고리를 점점 더 조여 가며 말을 이었다.

사건 수사를 내가 맡게 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특정 맥락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록 그 사실을 의식

했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억은 내 모든 생각을 지배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직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장 나는 막스 레리오를 오늘의 그가 아닌, 과거의 군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현재보다 과거가 더 궁금했던 것이다.

사건 파일을 처음 펼쳤을 때, 두 가지가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한 명의 이름과 한 가지 날짜였다. 막스 레리오는 1920년 11월, 베르됭에 있었다. 전사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 이름과 날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두 사실이 맞물리자마자 즉각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매일 아침 부아베르네 여사가 승리의 아치 아래서 기도하는 이유를, 내가 그토록 열렬히 따라가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1920년 11월 11일, 정전 기념일 전날, 성스러운 도시의 지하에서 가장 엄숙한 의식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1920년 11월, 베르됭의 저격수 하사관 막스 레리오는 어찌하여 승리의 아치 아래에 있었을까?

나는 현지에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했다. 길거나 어렵지 않았다. 그의 옛 대대장에게 물으니, 그는 즉시 당시 자신이 서명한 결정문 일부를 꺼내 보였다. 그 내용을 읽자마자 나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죽은 자를 실은 여덟 대의 마차 중 한 대의 운전기사였다. 이 마차들은 전장 여덟 곳에서 온, 미확인 시신 여덟 구를 싣고 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지의 용사'로 선택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는 다름 아닌 하사관 레리오였다.

장 루크발이 책상 등받이에 주먹을 내리쳤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을 적대자에게로 뻗은 채, 그는 낮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당신이었어요, 막심 레리오. 역사적인 의식이 치러진 지하 갤러리에서요. 명예 호위대에 이름을 올렸던 당신, 그곳에 서 있었죠."

그의 용감함과 군사적 명성이 그를 삼색기와 열병식 장비로 장식된 열병식 예배당의 벽을 수놓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했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뤽발의 격앙된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굳이 더 정확한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속마음은 이미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르클 페티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백한 동의를 표시했다. 그 모습은 장관의 열의와 확신을 한층 더 부추겼다.

전직 부사관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루앙의 문장들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내 날카롭고 논리정연해지며, 마치 포위 공격을 받는 적군을 에워싼 부대처럼, 상대가 깨닫기도 전에 그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백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지켜보며 듣고 있었다.

뤽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도 흐릿한 예감만 느껴왔을 뿐, 뚜렷하게 형식화된 의심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두렵었다. 그래서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 찬 그와 동일한 심정으로 움직였다.

그 증거들은 가차 없었다. 나는 그 증거들을 chronological 순서대로, 그리고 간략하게 열거하려 한다. 어떠한 해설도 덧붙이지 않겠다. 이 증거들 자체의 단순한 나열만으로,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실들과 행해진 행위들이 스스로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것부터 말하겠다. All Saints' Day(11월 1일) 이후, 11월 3일, 4일, 5일, 나는 어드주단 레리오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저녁이 되면 외딴 여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부부와 만나 저녁 식사 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그 부부는 아마도 가까운 대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던 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인다. 호텔 주소도 나에게 알려졌었다. 나는 그곳을 찾아 가서 등록부를 요구했다. 1920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부아베르네이 백부와 백부인이 그 호텔에 머물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작부인의 얼굴이 더 깊게 패였다.

루크발이 서류 더미를 펼쳤다. 그는 두 장의 종이를 꺼내 펼쳤다.

"이것은 두 개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하나는 막심 레리오의 것입니다. 1895년, 에르주르루아르주 돌리쿠르에서 태어났죠. 막심 레리오,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줄리앙 드 부아베르네의 것입니다. 역시 1895년, 같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아베르네 씨, 바로 당신의 아들의 것입니다. 같은 고향, 같은 나이. 이 점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루크발이 계속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제 돌리쿠르 시장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두 소년은 같은 젖을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지냈고, 같은 시기에 입대했습니다. 새로운 확실성입니다."

"여기, 1916년 베르됭에서 숨진 줄리앙 드 부아베르네의 사망 증명서가 있소. 두아umont 묘지에 안장했다는 인허증 사본도 있고.

레리오 하사장이 남긴 보고서 발췌문도 보시오. '플뢰리에서 브라스로 이어지는 도로 옆 도랑, 구급소 근처에서 말라비틀어졌지만 온전한 채로, 미상의 보병 한 명의 시체를 수습했다'는 내용이지.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지형도야. 구급소 위치가 여기, 그리고 줄리앙 드 부아베르네가 안장된 묘지에서 오백 미터 떨어진 곳이지.

나는 그 두 장소를 직접 오가며 확인했어. 그리고 땅을 파보라고 했지. 그러자 무덤이 비어 있었어.

줄리앙 드 부아베르네의 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누가 두아umont 묘지에서 그 관을 옮겨간 걸까?

당신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소? 막시모 레리오. 줄리앙의 친구요, 부아베르네 백부와 백부인 그리고 친구였던 당신 말이지."

루크발의 모든 말은 한결같이 하나의 진실을 입증하는 데 기여했다. 그 진실은 너무도 명백해서, 누구든 부정할 수 없었다. 루크발은 적을 무수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포위했다. 더 이상 저항할 길이 없었다. 그저 항복할 수밖에.

루크발이 레리오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전히 의문스러운 대목이 남아 있군요. 그림자 속에서, 즉 당신이 맡은 임무 동안 매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고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음울한 사건은 이미 펼쳐진 책 페이지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양형제의 관이 처음에는 두아몽에서, 정해진 무덤에 안치된 채, 신원 미상의 전사를 찾으러 가는 당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관을 가져갔으며, 그 관이 바로 베르됭의 요새에 다른 관들과 함께 보관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여덟 명의 무명용사 중 최후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루크발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닦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불안한 톤으로 들렸다.

"이 장면을 떠올리기도 두렵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하지만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실한 사실 아닐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화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시 호위 부대 병사 중 한 명에게 내려진 지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인, 이 꽃다발은 전장에서 꺾은 것입니다. 이제 이를 묘비 위에 올려놓으시오. 프랑스 국민들이 트로피에 아크까지 모시는 군인의 관 앞에 놓일 것입니다.'"

"당신도 그 말을 들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울었겠지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끔찍한 배신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배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속임수를 성공시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무작위로 뽑힌 그 병사가 당신에게 매수되었을 리 없습니다. 꽃다발을 놓는 순간, 그의 손이 조종당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장 루크발이 물었지만, 듣기 싫어서인지 귀를 막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명령조에는 진실을 강요하는 위엄이 없었다. 그 결과 긴 침묵이 흘렀다. 공기는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무거웠다.

부아베르네 여사는 남편이 건네준 향수를 맡으며 숨을 고랐다. 그녀는 몹시虛弱해 보였고, 곧 실신할 듯했다.

마침내 막심 레리오가 어설픈 해명을 늘어놓았다.

"장관님, 제게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착각도 있었죠."

스스로 그 오해를 풀 수 없었던 그는 도움을 청하듯 백작을 바라보았다. 백작은 아내를 돌아보았다.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면서도, 어디서 맞서야 할지 고민하는 남자의 표정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장관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장관님, 지금 대화의 흐름을 보면, 여기 세 사람은 당신 앞에 서서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혐의에 맞서 변명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그리고 어떤 권한으로 우리를 심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루크발이 대답했다. '국민에게 알려지면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사건을, 제가 가진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묻어버리려는 강한 의도 때문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정말 그렇다면,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각하. 술기운에 막스 리리오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과 소문을 낳았죠."

"거짓말 같은 소문들이죠, 각하."

"상관없어! 나는 그 소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소."

"어떻게요?"

"막스 리리오는 프랑스를 떠납니다. 알제리 남부에 직책을 마련해 두었소. 당신이라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소."

"그럼 저희는요, 각하?"

"당신도 함께 가시오, 마담. 프랑스를 멀리하면 모든 협박으로부터 안전해질 테니까."

"그럼 유배 생활이군요?"

"네, 각하.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백작은 다시 한번 아내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약해 보였지만, 오히려 그녀는 강인한 기운과 신중한 집념을 풍겼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파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하."

"왜 그러십니까, 부인?"

"그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호하고도 끔찍한 자백을 담고 있던 그 짧은 문장은, 죽음이와 애도의 메시지를 음절 하나하나 되뇌는 메아리처럼, 공포스러운 침묵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보스베르네 여사에게는 단순한 완고한 의지 이상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며 받아들인 싸움에 대한 도발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성스러운 무덤 속에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였다.

루발은 절망적인 몸짓으로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해명을 바라며 어떤 환상이라도 간직해 왔다.

그러나 그 자백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말 그런가?" 그가 속삭였다. "생각지도 못했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이야."

보이베르네 씨는 백작부인 앞에 서서 앉으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싸움의 태세를 갖췄다. 그 태도는 도발적이었고,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다.

두 적수가 마주 섰다. 첫눈에 적으로 정한 듯 치열한 대립이었다. 백작과 막심 레리오의 존재는 순식간에 주변부로 밀려났다.

신경이 최고조까지 타올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장면은 짧을 수밖에 없다. 검투가 서로의 모든 힘을 처음부터 쏟아붓는 일격처럼.

이 비극적인 결투의 격렬함을 더한 것은, 처음에는 고요하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도 없었다.

단순한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수사적 장식이 없는 평범한 문장들이었지만, 그곳에는 루크발의 놀람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라면 차라리 모든 고문을 견디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 하나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르느니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가 죽어서도 불행이 따라다닐 것만 같았어요. 남의 무덤에 아이를 묻어주다니! 기도와 눈물, 그리고 관 위에 내려앉는 모든 은밀한 염

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다니! 정말 끔찍한 죄악이 아닙니까? 당신도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다가, 다시 한 번 공격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수천, 수만 명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상처 입은 이들, 같은 권리를 가진 이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당하고, 빼앗기고, 훔치는 당합니다. 네, 훔치는 당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교묘하게요."

그녀는 모욕과 경멸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행위를 그 자체로, 또는 그 도덕적 가치를 헤아리기 위해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녀는 빼앗긴 아들을 다시 찾겠다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집념으로 행동했을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아무의 자리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미지의 병사 그 자신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모두 대표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루크발이 그의 팔을 꽉 쥐었다. 그런 말이 그를 격분시켰다. 그는 사라져 버린 아들들을 생각했다. 장례식 날에 거의 그들의 유해를 찾아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볼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 사라진 영혼들과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얼굴은 그녀 안에서 떨리는 모든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 그분께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그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분 위에 있는 더 높은 의지가 없었다면요. 우연히 어떤 군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군인은 그의 삶이나 죽음으로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제 아들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분께는 그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루크발이 열변을 토하며 반박했다. "만약 그분이 평생을 가장 평범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로 보냈다고 해도, 운명이 그를 선택한 순간, 그는 이미 가장 고귀한 이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만하기까지 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특별한 존재로, 영광과 명예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인물로 만들어낸 영웅적인 조상들과 죽은 자들의 줄기를 모두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각하." 그녀가 말했다. "저는 눈물이나 기도를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아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제 아들이라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증오가 폭발할 것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올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큰 분노와 경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루크발은 점점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증오했다. 그녀가 떠나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잠재우고 위기를 모면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는 거리낌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가셔야 합니다, 마담. 당신께서 묘지 앞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여성들에게 모욕입니다. 제발 가십시오."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떠나야 다른 여성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저기 있는 그분은 다시 무명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하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분 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건, 바로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그분을 뵙고, 말을 나누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 군중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프랑스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꽃과 합장한 손을 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러 오는 거죠. 바로 제 아들을요. 온

세상이 그분 앞에 줄지어 지나갑니다. 그분은 전쟁 그 자체이자, 승리의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자부심이 밀려와, 저를 더 크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그때면 저는 그분의 죽음을 잊어버립니다, 선생님. 저는 죽은 아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아들이 그 천장 아래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제 무릎이 절로 꺾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제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째로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루크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는 완고한 적을 짓밟고 싶었지만,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자 눈빛을 고정하며 그녀를 협박했다.

"나는 내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라도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점까지 갈 것입니다. 이 끔찍한 괴물이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녀는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를 고발하다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감히 저를 고발해 보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당신을 떨게 만드는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 보세요."

"의무의 끝까지요!" 그가 외쳤다. "무엇도 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마담, 떠나는 것은 그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의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의 잔인한 표현에 그녀는 몸이 떨렸다. 무덤에서 쫓겨나 어딘가에 던져진 그 시체의 끔찍한 상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얼굴이 경련처럼 일그러졌고, 그녀는 신음하며 가슴에 손을 올렸다.

보바르네이 남작은 그녀를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운을 잃고 주저앉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결투가 막 끝나는 참이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찔렸지만, 양보하지 않고 이겨냈기에 그녀는 승리한 셈이었다. 보바르네이 남작이 레리오와 에르쿨 페티그르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소파로 옮겼다. 그녀는 숨이 막혀 왔다. 이갈이 소리까지 들렸다.

"아, 각하!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백작이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루크발은 변명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본성이 극단적인 결단을 밀어붙일 때, 그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경우, 그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 그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시도할 용의가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든 상관없었

다. 총리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하지만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행동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주저 없이 그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쪽으로든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종의 복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연결을 받았다. 숨을 헐떡이며 빠르게 말했다.

"네, 저예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당장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반 시간 뒤까지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반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긴급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쯤 사람들이 병자에게 몰려들었다. 그녀는 이런 증상을 자주 겪는 모양이었다. 남편이 작은 약가방과 약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코트를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한 불안감에 조여들었고, 그녀가 들을 수나 있을지 모를 질문들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눌해졌다.

"네 심장이 아픈 거지, 내 사랑… 네 불쌍한 심장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뺨이 다시 붉어지고 있잖아… 내가 장담하건대,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내 사랑?"

실신은 몇 분간 이어졌다.

보이베르네 여사가 눈을 떴을 때, 루크발의 모습을 본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를 데려가세요… 떠나요… 여기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자, 내 사랑.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먼저 좀 쉬어라."

"아니요… 떠나요… 여기서 못 있어요."

일시적인 소동이 일었다. 백작의 간청에 맥심 레리오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보이베르네 부인은 헥토르 페티그르의 도움을 받아 코트를 입으며, 심란한 기색으로 뒤따랐다.

루크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사건이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저 혐오감만 느꼈을 뿐, 백작부인 같은 여자에게 구원이나 연민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는 창문의 유리에 이마를 대고서야 상황을 판단하고, 현재 처지에 맞는 행동 방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왜 총리에게 찾아가려 했을까?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검찰청이나 사법부에 연락하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려 하고 있군. 차라리 차분하게 가자.'

그는 걸어서 총리 관저로 가기로 했다. 선선한 공기와 걷는 운동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찬장에서 모자를 꺼내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번 더 페티그루 씨를 마주쳤다. 그는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방을 떠나지 않았다.

"뭐, 당신이에요?" 루크발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여전히 여기에 있네요!"

"네, 각하.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루크발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토록 불쾌한 친근감에 마땅히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그때 그가 몸을 쭉 펴고 말았다.

그는 경찰의 송곳니가 왼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입술이 말려 올라간 자락 밖으로 드러난 그 이빨. 만약 뜻밖의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토록 당황했을 리가 없었다.

매우 하얗고 날카로웠으며, 맹수의 이빨처럼 길었던 그 치아. 그가 알고 있었다. 그 이빨이 어떤 풍자적이고도 무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젠장, 내가 발음을 어설프게 한 적도 없는데.'

루크발이 생각했다. 그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페티그리가 썼던 바로 그 단어를.

그는 반발했다.

그처럼 사람과 일을 다루는 데 익숙한 장관이 어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사물을 선명하게 파악했다. 그가 택한 길은 목적지로 곧장 이어졌고, 평범한 이들이 발을 헛디뎌 빠지는 작은 함정들은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이 하나를 본 순간,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도대체 왜 하필 그 이였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역으로 페티그르를 비난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바로 그 녀석이지. 자, 생각해 봐. 이 모든 게 얼마나 명백한지. 중학생이라도 이를 속지 않을 거야."

그토록 명백했음에도 그는 면담을 받아들였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인가? 말해라."

"말하다니? 하지만 제가 당신께 할 말은 하나도 없소, 각하."

"뭐, 내게 할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여기서 밤을 새울 생각은 아니겠지?"

"물론이죠, 각하."

"그럼."

"그럼, 기다릴 뿐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지?"

"곧 일어날 일을요."

"어떤 일을?"

"기다려 보세요, 각하. 자네가 나보다 더 궁금해하실 일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몇 분, 길어도 열 분 정도요. 네, 정확히 열 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루크발이 외쳤다. "저 사람들의 자백은 분명해."

"어떤 자백을 말인가?" 경찰이 물었다.

"뭐, 레리오와 백부인, 그리고 그의 부인의 자백이지."

"백부인은 모를까. 백부인은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고, 레리오 역시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래가 아닙니다, 각하. 이건 사실입니다. 두 남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을 건 건 각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루크발의 위협적인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들었죠. 그 웅변이라면, 의회 연단에서도 큰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오찬과 행렬, 그 모든 것이 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요리할 때, 연설로 채워넣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질문합니다. 말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게 수사의 본질입니다.

페티그르 씨가 구석에서 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페티그르 씨는 우리 두 남자를 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아베르네이를요. 그래서 장관閣下, 저는 여덟 분 후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 일곱 분 반이 남았네요."

루크발은 진정되었다. 피티그르 씨의 예언,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이한 예고에 그는 단 한 푼의 신뢰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끈기는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이빨, 특히 야위고 사나우며 오만하고 신비로운 그 송곳니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결국 체념했다. 자리로 돌아간 그는 펜대를 쥐고 책상을 격렬하게 두드리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시계를 확인하거나, 피티그르 씨를 엿보기도 했다.

그는 단 한 번 몸을 움직였다. 메모장 한 장을 찢어내어, 루크발이 들고 있던 자기 펜을 멋대로 빌려 급하게 몇 줄을 써 내려간 것이다.

그 종이를 네 번 접어 봉투에 넣은 뒤, 책상 끝자락에 놓인 사교계 연감 밑에 숨겨두었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끔찍한 개구리가 왜 신비로운 이유로 비웃듯 웃고 있었을까?

삼 분. 이 분.

루크발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재 안을 거닐며 의자를 부딪치고 책상 위의 장식품을 튀겨 버렸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지루했다.

페티그루 씨와 그 악마 같은 치아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잠잠하세요, 각하…"

경찰이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들어 보세요…"

"무엇을 듣게요?"

"발소리입니다. 자, 누가 두드리네요…"

정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루크발은 사무관의 은밀한 두드림 소리를 알아챘다.

"혼자가 아닙니다." 페티그루가 단언했다.

"어떻게 아시오?"

"혼자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일이 곧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하. 때가 되면 진실을 억지로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제 팔 끝에는 문이 달려 있습니다. 각하께서 그 문을 여는 것을 막지는 못하시겠죠?"

지친 로크발이 직접 문을 열었다. 문지기가 고개를 내밀었다.

"각하, 방금 아가씨와 함께 나가신 분이 외투를 찾으십니다."

"외투요?"

"네, 각하. 그분이 잊으셨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한 모양입니다."

허큘레 페티그르가 설명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각하. 제가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제 외투를 가져가시고, 제게는 그분의 외투만 남겼습니다. 혹시 그분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루크발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집행관이 나갔고, 곧 보드베르네 씨가 들어왔다.

외투가 바뀌었다. 백작은 외면을 하려는 태도로 고개를 돌리는 루크발에게 인사를 하고는 문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턱에서 그는 잠시 주저했다.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를 중얼거렸고, 결국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왔다.

"열 분이 지났습니다, 각하." 페티그르가 속삭였다. "그러니 이제 일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루크발은 기다렸다. 사건들이 경찰의 예상을 그대로 따르는 듯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monsieur?"

장시간 망설이던 부아베르네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각하, 정말로 우리를 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행위가 초래할 결과는 너무나 중합니다. 제게는 각하의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캔들, 그리고 공분."

루발은 격분했다.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합니다. 이 일은 각하와 저 사이에,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합의라니, 이미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아베르네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소."

"부인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루발은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아내와 자신을 구분하는 태도라니. 방금 전 페티그르가 이미 그런 식으로 접근한 바 있었다.

"무슨 뜻이오?"

백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망설이는 듯한 태도로, 문장마다 잠시 멈칫거리며 말했다.

"전 장관 각하,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위험한 약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가엾은 아들의 죽음이 아내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종교적인 신념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집착이 되어버렸죠. 제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막심 레리오가 찾아왔고, 그의 말 속에서 저는 이런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주저했다. 루크발은 점점 더 격분하며 반박했다.

"시간만 낭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계략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恰恰 그 사실 하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Bois-Vernay 씨가 말했다. "당신은 누군가의 행동을 준비하는 정황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단지 두려움 때문에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Rouxval은 이해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아내가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Bois-Vernay 부인 스스로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었을 테니까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합니다, 각하. 제가 시체 인도를 알렸던 정황, 레리오와의 만남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하. 그 사실들은 실행의 '시작'을 보여줄 뿐, 실제 실행 자체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즉, 막심과 저 사이에 만남이 있었고, 시체가 실제로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결코 그런 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막심 레리오 역시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제 아내에게… "

"그녀에게 무엇을?"

"환상, 각하."

"환상이라니요." 루크발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상이 그의 머릿속에 뚜렷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네, 각하. 그녀를 지탱해 주고, 다시금 삶의 맛을 느끼게 해 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를 지금까지 버텨오게 한 힘이기도 하죠. 각하, 그녀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녀는 아들이 성스러운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충분했다.

루크발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마를 쓸어내리며 손으로 땀을 닦았다. 갑자기 밀려든 기쁨이 너무 커서, 그 흥분이 표정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무심한 척하며 그는 물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위장한 셈이군요……. 그런데 저 모든 증거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제가 그녀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도록 쌓아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죠, 각하. 시신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사체 운반차에 실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목격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운반차가 베르됭의 병영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조금 떨어진 시골 묘지에 묻혔다는 걸, 가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부재한 대신 제 이름과 그의 어머니 이름을 대며 용서를 구한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루크발은 그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사실 그 자체를 확인하는 듯한 말에는 어떤 반박도 불가능했다. 루크발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막심 레리오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막심 레리오는 내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저에게 준 돈은 그에게 불균형과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더 많이 원했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은 정직하고 충실하다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떠난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로크발이 일 분의 침묵 끝에 물었다. "당신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진실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믿기를 바란다면, 저는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의되었습니다, 각하. 비밀은 지켜질 것입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로크발은 종이를 꺼내며 백작에게 글을 쓰라고 권했다. 그런데 그 순간, 헐크 페티그르가 안내장을 가리키며 로크발에게 속삭였다.

"여기, 각하. 책 밑에 있습니다. 그냥 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온다는 거지?"

"자백서입니다. 방금 작성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인가?"

"물론이지요. 백작 각하는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루와발은 당혹스러운 듯 전화번호부를 밀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 뤼즈베르네 백작은, 레리오와의 공모 하에 아들이 아크 드 트리옴프 아래 묻혔다는 아내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나는 정중히 단언하건대, 불행한 내 아들을 '알 수 없는 병사'의 무덤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는 나나 레리오가 결코 하지 않았음을.'

루크발은 침묵을 지켰다. 백작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차분하게 그 편지를 다시 한 번 소리 내어 읽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재는 듯한 태도였다.

"좋소.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군. 내가 직접 이 진술서를 썼다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쓰지 못했을 거야."

그는 결연한 손길로 서명했다.

"당신을 믿습니다, 각하. 조금만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사랑이 지나쳐 죄를 지은 한 어머니의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말은 곧 법이다.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는 무심한 듯 부아베르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문까지 배웅한 뒤, 문을 닫았다. 다시 창가로 돌아온 그는 이마를 유리에 다시금 기댔다.

이렇게 보니 피트그르가 진실을 꿰뚫고 있었군!

장애물과 함정이 가득한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피트그르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냈던 것이다.

루크발은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건의 전모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쳐지는 것을 보며 느꼈던 희열은 사뭇 시들해졌다.

그의 뒤에서는 작은 닭이 우는 듯한 낄낄거림이 들려왔다. 경찰관 특유의 승리의 표출일 것이다. 루크발은 그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이, 끔찍한 이가 떠올랐다.

'이 녀석이 나를 장난감으로 삼고 있군. 처음부터 그랬어.

의도적으로 나를 방치한 거야.

설마 그가 나한테 경고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

참으로 멍청한 놈이로군!'

하지만 그에게 장관이라는 위상은 그토록 굴욕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그다음은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마 어떤 단서를 발견했을 거예요."

"단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티그르는 적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머리를 굴리고 상식만 갖추면 됐을 뿐이죠." 그는 참을 수 없이 순진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 각하, 그 이야기라면 설령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성립이 안 됩니다. 불합리함과 터무니없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모순도 있고, 빈틈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죠. 온갖 색깔로 그 허점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백작부인이 그 말에 속았다고는 해도 말이죠. 하지만 각하, 1류 장관이 그런 식으로 속으시다니요.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이 저렇게 시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무명 용사'가 진짜 무명 용사라고 믿도록 모든 게 짜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했고, 트럭을 불러왔으며, 공무원들과 장군들, 원수들, 각하 같은 고위 관료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온갖 귀신과 그 일당까지요. 그런데 각하는 지갑에 지폐를 쥔 한 사내가 온 세상

을 속이고, 개선문 아래에 종신 묘지를 사들일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시단 말입니까?

진실로, 저는 보잘것없는 사건도 많이 봐왔지만, 이번처럼 치밀하고 거대한 속임수는 처음 봅니다."

루발이 참았다.

"증거가 충분했죠."

"증거라니, 그건 아이들 장난이야. 난 바로 그 순간, 페티그르로서 물었지. '백성이 트라이옴프 아크를 지을 돈이 없다면, 레리오 씨와 무슨 꾀를 부린 걸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이봐, 친구. 너는 영리한 놈이군. 네 여자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그걸 믿도록 속임수를 부렸구나. 하지만 너는 겁쟁이이기도 해. 내 상사가 화를 내고 위협하면, 넌 금방 무너질 거야."

"그게 전부야, 각하. 각하의 분노와 위협. 부아베르네 씨가 무너졌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외투는요?"

"외투라니요?"

"고객이 그 외투 없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아가씨를 설득해 자리를 피할 구실과, 법정이 개입하기 전에 자백할 기회를 필요로 했죠."

"그럼요?"

"그가 떠난 뒤, 나는 그의 외투 대신 내 외투를 그에게 입혔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흥분했고, 눈앞이 캄캄해져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하지만 밖으로 나가 그의 차에 올라타서 내 옷을 발견한 순간,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여기로 달려왔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 이 사건은 어떻게 꾸며낸 거야?"

"물론 내 인생에서 더 나은 일을 한 적도 있어.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지. 하지만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묘했을 거야. 행동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다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도 않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게 말이야. 정말 완벽하게 처리한 작업이지?"

루크발은 침묵을 지켰다. 에르클 푸티그리가 묘한 술수로 상황을 주도하는 솜씨가 너무 능숙하고 자연스러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푸티그리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논쟁에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사건의 정황을 아는 것은 오직 루

크발이 들려준 이야기뿐이었다. 그럼에도 푸티그리는 사실상 대화를 이끌었고, 질문의 방향을 잡았으며, 사건을 환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놀랍도록 정교한 손짓 하나로,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두를 설득했다. 분명히 그는 일품의 명수였다. 고개 숙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루크발은 지갑을 꺼내 지폐 한 장을 꺼냈다. 하지만 팔이 멈췄다. 날카로운 한 마디가 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거 넣으십시오, 각하. 저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이빨이 빛났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다시 웃음기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얼굴 표정이 다시 사나워졌다.

"상사가 어눌하게 말하면, 내가 조금 웃는 게 잘못인가? 내 일인데, 웃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녀석들,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이 말을 들을 때면 누구나 떠올랐을 법한, 능청스러운 그 말투였다.

우연히 루크발은 거울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삑삑이'의 표정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그는 속이 타올랐다.

"겁내지 마십시오, 각하." 경찰이 너그러워지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더 처참한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각하의 큰 실수는 논리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의 논리는

역설처럼 보일 수 있으니, 역병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논리는 지하수를 흐르는 물처럼 아래에서 흐릅니다. 바로 그 물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하는 그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

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에 빠진 셈이죠. 진흙탕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녹색빛이 도는 외투를 팔에 걸쳤다.

이빨이 점점 더 날카롭게 드러났다. 루크발은 그 이빨의 위협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 낯선 남자의 옷깃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이만 그만합시다. 내가 장관님께 당신이 해준 은혜를 보고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발이 격분하며 외쳤다.

"네, 장관 각하."

그 남자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마치 새로운 얼굴을 얻은 듯했다. 더 이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불쌍한 신세가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변해 있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거대한 송곳니를 살며시 집어 뽑아냈다. 마치 쓸모없는 소품을 떼어내듯 가볍게 말이다.

얼굴이 일그러졌던 자리가 곧게 펴졌다. 더 이상 찡그린 표정은 없었다. 얼굴은 평범해졌고, 표정은 친근해졌다. 다만 조금은 거만한 기색이 감돌았다.

루발이 물었다.

"무슨 뜻이오? 당신은 누구요?"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소."

그가 대답했다.

"내가 아르센 뤼팽이라고 생각해주시오. 당신의 작은 불행이 남기는 기억이, '페티그리'라는 이름 대신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 불쾌하겠소."

루발은 안마당을 가리켰다.

그는 태연히 루발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각하. 그리고 한 가지 충고 하나 더 드리죠. 차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일은 각자 맡은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정부 문서에 온갖 낙서를 남기세요. 하지만 경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었다. 그는 감히 다시 돌아와 룩스발 앞에 서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각하, 각하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누가 백성이 길에서 멈췄다고, 그리고 속임수를 부리지 않았다고 증명합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속임수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각하."

이제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모자를 고쳐 쓰고, 자신을 안내하던 하인을 향해 인사를 건넨 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대기실을 나섰다.

루크발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페티그르의 마지막 말이 그를 유독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의 이빨이 쏘아 올린 한 방울의 독이 상처를 다시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이 사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안개 속에 가려진 채로 남을 것이며, 자신은 끝내 의심이라는 독소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건 터무니없었다.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증거가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발굴된 시체… 그리고 그 마차란 것이…

"크레블루, 크레블루!" 그가 격분한 나머지 소리쳤다. "저 악마 같은 놈이로다! 만약 내가 다시 그놈을 잡는 날이 온다면!"

하지만 루크발은 속으로 생각했다. 페티그르는 곧 아르센 뤼팽이었고, 아르센 뤼팽은 한 번 놓친 자를 다시는 잡지 못하는 존재라고.